

문제 1

1. 사실상 네가지 기준은 의미가 없습니다. 발문자체에서 가-1과 가-2를 기준으로 대응적 비교를 해야하므로, 나는 가-1과 가-2의 공통주제인 언어규범에 따라 구분해야합니다. 그러면 구분하신 3가지 기준은 언어규범을 파괴한, 나머지 하나는 파괴하지 않은 으로 2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번째로 줄여서 적은 경우는 뽕삼질, 짱나, 즐겜, 냉무, 방가, 갠전, 강추, 솔대, 어쇠요, 글쿤, 삼포시대, 직따, 생강녀, 능청남, 운도남, 운도녀가 있다. 두번째 초성만 적은 경우는 LKCKCK, ㄱㄱ, Lㄱ, OOI 있다. 세번째 발음나는 대로 적은 경우는 추카추카, 시러, 마자, 살앙하눈, 거머안, 머쩌근이 있다, 마지막으로 의미에 특징이 되는 단어로 적은 경우는 손주병, 알바추노, 타조세대, 월급루팡, 돌직구남, 돌직구녀, 김치녀, 신생아남, 신생아녀, 등골백팩이 있다. ”

또한 이렇게 모든 예시를 서술함으로써, 의미없는 서술만 계속되고 있기에 좋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2. 하지만 대응 자체는 좋습니다. 1번지적으로 보면 3가지 기준은 언어규범 파괴이므로 비판, 나머지 한 기준은 파괴하지 않음으로 비판받지 않음. 좋은 대응입니다. 1번지적에 대한 내용이 정말 아쉽네요. 가-1과 가-2에 대한 대응적 비교문제라는 기출분석만 철저했어도 이러한 실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3. “제시문 (가-2)에 따르면 (나)의 유형들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 여기서 대응한 내용이 (나)의 모든 유형들인지 제대로 서술하지 않아 혼동을 줍니다. 물론 답은 모두 유용한 결과로 대응하여야되지만, 서술상에서 이러한 실수를 배제해주세요.

4. “또 창조적 직업에 종사하거나 사회 규범에 어긋난 성 소수자들의 비율이 높을 수록 그 사회의 GDP수준이 높다.” 정확한 예시인가요? 대한민국이 유럽의 많은 나라보다 성 소수자 비율이 낮은데, GDP는 높을 텐데요. GDP는 성 소수자의 비율로도 볼 수 있지만 사실상 그 외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이 더 많을 겁니다. 이러한 근거는 들지 마세요.

문제 2

1. “제시문 (다)에서는 사회규범의 다양성과 변동성을 보여준다. 그 예시로 마리화나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 굳이 이렇게 서술할 필요 없이, 제시문 (다)에선 마리화나를 통해 다양한 나라들의 사회규범 변화를 보여준다. 라고 서술하시면 됩니다.

2. 그리고 이 문제의 포인트는 제시문 (다) 요약이 아닌 표 대응입니다. 하지만 글자 수 비율이 요약에 너무 치우쳐, 제대로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출제의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3. “ 이러한 관점에서 제시문 (라)를 보면 (가)의 A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규범 즉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면서 사법 시험 지원을 중 여성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반면 B국은 1999년과 9년이 지난 2008년 모두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38%와 62%로 전혀 변화가 없다. 또 1999년 A국의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각각 82.8%와 17.2%였지만 B국은 62%와 38%이므로 각 사회마다 사회규범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이는 제시문 (다)의 관점이 없어도 이해 가능한 설명 아닌가요? 단순한 표에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대응이 없어 발문 불이행으로 합격이 불가능한 답안 작성입니다.